

[로스쿨 합격기]

## 지금, 당신에게 열려있는 로스쿨의 문

### 박수형

- 일산동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수석입학



#### I. 들어가며: 로스쿨 입학을 꿈꾸는 분들께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만큼이나 저 역시도 1년 전에는 초조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누리던 것도 잠시, 변호사 시험을 위해 더욱 치열한 로스쿨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합격을 향한 갈망만큼은 입시를 준비하던 때에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비법학사에, 견줄만한 경력도, 뛰어난 영어실력도 없었던 제가 감히 수석입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는 데에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1년 전의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께 ‘나 같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 II. 지원동기: 나에게 묻기

법이라고는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도밖에 모르던 제가, 전공으로 공부한 철학이나 정치외교학 외의 제3의 길인 법학을 선택한 이유는 로스쿨 체제에서야말로 제가 가진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전공을 통해 익힌 논리력과 로스쿨이 지향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이러한 저의 성향과 가치에 대해 스스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법학 공부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향한 꿈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를 스스로 묻고 본격적으로 도전할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와 더불어, 법조인이 되어 사회에서 조금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갖췄다면 로스쿨 입시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 Ⅲ. 대학생활: 학점관리와 대외활동

대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학점관리입니다. 알다시피 로스쿨 입시에서 학점은 리트, 영어와 함께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주요 요소입니다. 학점은 학생으로서의 성실함을 평가하는 척도임과 동시에, 일단 한 번 고정된 학점은 그 이상으로 올리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저의 1학년 학점은 등수를 뒤에서 세는 것이 더 빠를 만큼 저조했습니다. 진정한 대학생활이란 열심히 공부하기가 아닌 열심히 놀기라고 생각했었고, 부끄럽게도 2학년이 되어서야 보통의 학점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학년 이후로 점점 로스쿨을 생각하게 되면서 지나친 낙관과 안일함 대신, 무조건 학점을 끌어올려야겠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학점 관리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내신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이 조금 더 높은 학점을 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높게, 최소한 백분율 90~92% 정도는 만들어 놓아 학점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외활동입니다. 새내기 시절부터, 공부는 못하더라도 대외활동은 많이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동아리, 학회, 봉사활동, 인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어느 한 가지 활동만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대외활동은 학교 밖에서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갖고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은 기존의 사시체제와는 다릅니다. 학업 외에도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대외활동들은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

#### IV. 영어: 최소 900점은 확보하자.

학점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리트 점수는 쉽게 오르지 않는 것과 달리, 영어 점수는 단기간에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유동적인 영역입니다. 때문에 법학사라 하더라도 결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비법학사는 무조건 토익 95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스쿨 입시에서 필요한 자료는 영어 '점수' 이지 영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춘 커리큘럼으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리트 시험이 7월에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늦어도 2월 안에는 완성되어야 합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학원을 한두 달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학원을 다니며 문제 푸는 기술 및 수험적합성을 키우고,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토익스터디를 하며 하루에 한 회씩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 때 LC와 RC, RC 중에서도 문법과 독해 영역을 각각 분리하여 그에 맞춘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LC는 무조건 많이 듣는 것이 유일한 공부방법입니다. 1시간 모의고사를 풀고, 그 회를 두세 시간 정도 복습하고, 이동시간 등 틈이 날 때마다 그 전날 풀었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무한 반복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점수를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C에서 문법은 얼핏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 출제범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개는 기출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휘 및 어법을 꼭 숙지하고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푸는 스킬을 길러 본 시험에서는 빠르고도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습을 통해 part5 정도는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해 영역은 지문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별도로, LC에서도, RC 문법에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저의 영어 공부 방법이므로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되, 각자에 꼭 맞는 방법을 찾아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900점 이상을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900점 이상은 되어야 리트 및 면접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영어 점수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V. 리트와 논술: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천천히 꾸준하게...

흔히 리트 점수는 첫 모의고사 성적이 본 시험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트 시험의 특성상 절대적 공부량에 비례하여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닐뿐더러,

실제로는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장기간에 걸친 공부습관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리트 문제를 접하면서, 이 시험이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비록 아주 고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처음보다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리트 역시 시험의 성격을 알고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리트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컨디션 조절과 시간분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리트는 ‘많이’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는 확실히 꼼꼼하게 풀어보되, 모의고사는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만 치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외에는 행정고시, MEET, DEET 등 리트와 유사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설 강의와 모의고사 문제집 등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들쭉날쭉한 성적에 스트레스만 받고, 정작 큰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경우를 주위에서 여럿 보았습니다.

컨디션 조절과 함께 시간분배는 리트 점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이야말로 리트 문제풀이에 최적화된 전략입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평소 독서를 많이 하여 독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모든 지문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입니다만, 대개 한 지문 정도는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험이 종료됩니다. 자신이 후자라면 가장 취약한 분야, 이를테면 문과생은 과학이나 기술, 이과생은 철학 관련 제시문을 제일 끝에 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 경우에는 읽는 것 자체가 고통인 과학 지문을 과감히 제쳐버림으로써 시간을 확보하고 남은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추리논증은 총35개 문제 중 딱 30개만 풀고자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정확히 푸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리트를 보고 나면 논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트에 온 힘을 쏟고, 논술을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논술 역시 학점·영어·리트와 함께 명백한 전형 요소이며, 각 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살피고 엄정하게 채점을 하십니다. 논술 덕분에 합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논술 때문에 불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였던 철학과에서는 평소에도 글을 쓸 기회가 많아 특별히 논술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학과를 비롯한 여타 전공자분들은 되도록 일주일에 한

편정도 꾸준히 글을 써보면서 글의 전개, 논점 파악, 분량 엄수 등을 연습하셨으면 합니다.

## VI. 면접: 면접도 시험이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토대로 저의 정량 스펙을 보면 응시생 평균보다 조금 높은 학점에, 비법학사임을 감안하면 보통인 영어, 애매한 리트점수까지, 무엇하나 확실하게 내세워 두각을 나타낼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경북대학교 로스쿨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데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단계를 합격한 분들의 성적 및 각 학교의 지원자들 스펙 역시 대동소이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면접은 최종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직접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결국 면접관인 교수님들께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점수로 합격을 하고, 소위 안전한 점수로 불합격 통보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정량 점수로도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었습니다. 리트를 마치고 한참 면접 준비에 열을 올리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저의 면접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발표나 토론에 익숙하지 않다면 면접스터디에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로 풀어내어 입 밖으로 뱉는 것은 전연 다른 일입니다. 스터디를 하며 개별면접, 집단면접, 토론 등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면접이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주장과 근거를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자신의 의견이 비판받는 것을 염려하여 논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면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은 생각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자기의 편으로 오도록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설득은 이야기의 논리적 전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제시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인과관계를 따지고, 모순을 제거하여 논점을 찾는다면,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고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언어로써 뱉을 때에는 결코 서두르지 말고 교수님 한분 한분과 아이컨택을 하며 당차고 자신감 있게 임하면 성공적인 면접이 될 것입니다.

비법학사라면 면접에서 제시되는 법학 관련 문제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의 리갈마인드만 갖추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법학 용어들과 법적 쟁점을 찾는 작업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

다면 시중에 나온 면접 대비용 교재를 구입하여 문제가 되는 기초적 사안, 특히 기본권의 충돌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시사토론 프로그램이나 신문의 칼럼 등을 틈틈이 보면서 현재 이슈로 크게 떠오르는 사건들 정도는 대강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VII. 글을 마치며: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점관리, 대외활동, 영어, 리트, 원서작성, 그리고 면접까지. 로스쿨 입시는 길고 긴 마라톤과 같은 여정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 지기도 하고, 긴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정을 가득 안고 목표를 확실히 하여, 마지막까지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자만이 로스쿨 입학의 꿈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관들 앞에서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들어 있다면, 처음 로스쿨을 꿈꾸며 도전하고자 했던 열망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 법조인이 되어서 하려 했던 일들을 되새기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로스쿨의 길은 반드시 열려있을 것입니다.

로스쿨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조심스레 글을 써 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끝까지 읽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하게 로스쿨을 열망하시는 분들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향후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